

종합·해설

대선 프리즘

‘국민감동 단일화’ 가능할까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막판 초읽기에 들어갔다.

21일 양자 간 TV 토론이 실시되고 22일까지 단일화 방식을 마련, 늦어도 25일까지는 단일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문제는 후보 단일화가 국민적 감동을 견인할 수 있느냐다.

아권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더라도 이번 대선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간의 박영의 승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후보 단일화가 국민적 감동을 견인하지 못한다면 아권의 대선 승리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문 후보와 안 후보의 막판 단일화 논의를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은 점차 냉랭해져 가고 있다.

단일화 논의가 함께 승리하는 방식보다는 승자와 패자의 논리 구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진영에서도 단일화에서 패배할 경우, 정권 교체를 위해 어떻게 기여하겠다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막판 단일화 방식을 둘러싸고 서로의 날 선 공방만이 격화되고 있어 후유증마저 우려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의 단일화 논의의

민주 오만? 안 떼쓰기?

공방 격화 후유증 우려

정권교체 협력 파트너

오늘 TV토론 분수령

정이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문 후보가 제시한 정당쇄신책은 일관성이 약했다는 평가도 지도부 퇴진 등 인적쇄신은 안 후보의 단일화 중단 선언에 맞춰 이뤄지면

서 감동이 반감됐다.

최근 문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자 당내에서는 정권교체의 파트너인 안 후보를 평가절하하는 등 오만한 모습마저 보이고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권교체에 대한 진정성 보다는 민주당의 승리에만 집착, 관을 그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도 선부른 오만과 오만으로 대패했던 지난 4·11 총선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다. 새

로운 정치의 아이콘으로 부상, 대선까지 도전하고 있지만 국정 운영의 비전을 제대로 각인시키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아마추어의 한계를 벗어 나지 못하고 단일화 국면에서 ‘떼쓰는’ 모습마저 엿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범야권 시민사회 인사들의 모임인 ‘희망2013·승리 2012 원탁회의’는 문 후보 측에 “경선에서의 승리뿐 아니라 (대선에서) 이겼을 경우 안 후보 세력을 어떻게 포괄할지 연구하고, 졌을 경우 어떻게 협력하고 국정 운영에 동참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를 향해선 “단일 후보로 선정되면 민주당을 포괄하는 신당 창당 등을 전제로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21일 실시되는 문 후보와 안 후보의 TV 토론은 후보 단일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양 후보가 TV 토론에서 정권 교체에 대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밝히면서 국민적 감동을 견인할 것인지 아니면 후보단일화의 승패에 집착하며 서로 공방전을 벌이는 우를 범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문·안, 광주·전남 지지 선언 경쟁

일부 “명단에 명의 도용됐다” 주장 등 부작용도

대선이 2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전남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지지 호소하는 등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단일화 초읽기에 들어간 문재인, 안철수 지지자들의 지지선언 경쟁이 더욱 뜨겁다. 양측은 호남 표시이 단일화 승부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3~4일 동안 지지 선언 경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부 지지선언 중에는 지지선언 명단에 명의 도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 진심캠프 국정자문단과 국방포럼 주요 인사들은 20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본선 대

결에서 확실하게 승리할 사람은 안철수 후보”라며 안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후보는 이번 대선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2030세대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이고, 중도층과 무당파층의 지지까지 얻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호남을 차별했던 ‘후예’ 2명이 호남에서 표를 달라고 하고 있다”며 문재인·박근혜 후보를 겨냥했

다.

전남장애인총연합회는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전남장애인총연합회는 회견에서 “전남의 20만 장애인들은 인간다운 삶 보장과 서민을 위한 정책적 지원, 차별 없는 세상을 실현할 책임자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그의 당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용철 전 광주 북구의회 의장 등 전직 북구의원 13명은 이날 “국민대통합을 위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랫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떠나 새누리당에 입당하기로 결정했다”며 “국가의

장래를 생각해봤을 때 박 후보만이 동서화합과 지역발전, 남북통일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철학을 갖춘 후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전직 북구의원 중 2명은 자신들의 이름이 도용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전남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전·현직 지방의원 중에도 2명의 전직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지지선언자들의 명단을 면밀히 파악해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1일에는 ‘광주시민·전남도민 1만여명 안 후보 지지 기자회견’이 광주시의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주부·청년·노인·소상공인·학생·농민·취업준비생·택시 기사·회사원·재래시장 상인 등 30여 명이 대표로 참석해 안 후보 지지를 선언할 계획이다.

반면, 이날 영·호남 약사들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후보 지지를 선언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이수호 서울 시교육감 후보와 인사하고 있다. /연필뉴스

박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문 “4년 중임·부통령제 개헌” 안 “개헌보다 민생문제 해결”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20일 각각 토론회 등에 참석해 개헌과 지방분권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정책 행보를 이어갔다.

박근혜는 박 후보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전국기초광역의원 결의대회에 참석, “국민 모두가 행복한 ‘100%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지방분권 확대가 100% 필요하다”며 “기초의원·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통해 기초의원·단체가 중앙정치의 간섭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정치를 펼칠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분권 강화의 핵심에 국토균형발전이 있다. 지방거점도시를 중추도시권으로 육성하고 쇠퇴하는 지방도시의 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대 2인 상황에서 지방소비세 비율을 높이는 등 지방세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은 문 후보는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개헌 논란과 관련 “국민 공감대가 있는 4년 중임제·부통령제와 국회가 정부를 더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은 원포인트로 아예 대선 과정에서 공약하고 지지를 받은 후 초치부터

바로 추진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피력했다. 그는 “정권 초기에 개헌을 논의하면 블랙홀이 돼 다른 개혁과제가 안 되고 정권말에 하연 정략적이 라고 의심받을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 “10·4 정상회담 때 그런 발언이 없었다는 것은 국정원과 통일부장관에 의해 이미 확인·규명된 것”이라며 “(대화록 공개 요구는) 외교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안 후보는 한국기자협회 주최 초청토론회에서 개헌에 대해 “우선 개헌 이전에 할 수 있는 일과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그 후에 개헌을 통해서만 이를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국민의 열망이 많다면 개헌을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개헌시 대통령 임기를 줄이는 문제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아권 단일화와 관련 “아권 단일후보로 선출되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부분의 국민적 지지를 모아 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단일화 효과’ 김빠기 나선 새누리

새누리당은 20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임박함에 따라 단일화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김빠기 공세에 나섰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현상 행보 및 TV토론 등을 통해 진면목 알리기에 주력하고 중앙선대위는 단일화 때 리기에 나서는 등 투 트랙 진수를 구사, 아권 후보단일화의 컨벤션 효과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인 황우여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연설을 통해 “정치쇄신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이겨보겠다는 정치공학적인 공여지책”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또 문·안 후보의 단일화 후보 사퇴 협상으로 깎아내리는 동시에 밀실 협상을 통한 권력 배분, 집권 초기 정계 개편론 등을 거론하며 단일화 부작용을 거론했다.

김성주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날 KBS라디오 방송에 출연, “희대의 정치쇼이고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박탈하는 대선”이라며 “1등 여성 후보가 무서워 2·3등 남성 후보들이 아합하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덕축제를 아무

리 화려하게 한다 해도 더덕이 산삼이 될 수는 없다”며 “우리는 준비된 대통령, 정치교체를 이룰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을 차분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또 문 후보로의 단일화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문 후보에 대한 검증에 강화할 방침이다.

선대위 핵심관계자는 “안 후보로의 단일화 가능성도 있지만 현 흐름과 구조에서 문 후보로 갈 것으로 본다”며 “북방한계선 문제(NLL),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임문제 등을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박지원 “부장검사 구속 책임, 검찰총장 사퇴해야”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0일 현직 부장검사가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 한상대 검찰총장의 즉각적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해임해야 한다”며 “이것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탄핵 등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검찰의 비리를 용서할 수 없다”며 “검찰이 뼈를 깎는 아픔으로 참다운 개혁의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신용카드 한도 구매

사용한도만큼 현금으로!

상품권 매매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법인개인 출장가능!

현금필요하신분 3분이내 즉시해결!

H. 010-2082-6353 TEL. (062)383-6364

운명철학

人間的 길흉화복이라는 것이 과연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일까? 또는 운명적 접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 노력과 기회로 강호의 영웅호걸이 탄생되고, 21세기 현대문명아래서도 죽한기 제대로 못먹고, 신음하는 노후인생과 빈병들은 정녕 노력을 안해서였을까?

여기서 엄청난 사실을 발견할수 있다! 자신의 분수(운명)를 모르고, 분마처럼 날뛰면서 청춘과 일생을 허생당사한 결과는 어떠한가? 두번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의 흐름에서 참으로 선천과 운명적으로 부여받은 스스로의 복덕과 관음 재운 부부 지식학은 건강당이 자신의 숙명관에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 지 참고점점 해보는 것이 지혜있는 삶의 방법입니다.

※단 맞지 않으면 무조건 무료 중국, 대만, 대한민국 재미두수 대가!

경천동지할 비술인(전문 재미두수)로 수십년을 요달한 경지에서 인생길을 통쾌하게 안내함. 역술과 풍수지리 철학의 길 기초부터 무료강의 무료 개인지도 자격제한 없음(무속인, 역술인 환영)

감정강의장소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95-2 (광주점 상류 소재원 주차장 아래 하천변) 철학연수원(진짜곰탕집)

TEL 061-383-7222 HP 010-4178-8830

강사 柳無山居士

사정상·급매

문의 : 010-3605-5000

- 1.수기동 제일오피스텔 9층 14평
2.경매개시 결정 전 물건
3.주거/사무실 겸용,대형주차장
4.현 보3백만원에 월 30만원에 임대중/즉시입주가능
5.용자 2000만원정도 가능
6.급매 2500만원(일시불) 시세 4000만원 정도
경매 낙찰도 2512만원에 됨

- 1.신안동 제일오피스텔 2층 50평
2.사무실 전용,코너,대형 주차장
3.현 보1천만원에 월50만원에 임대중/즉시입주가능
4.용자 5000만원 정도 가능
5.급매 8500만원(일시불) 시세 1억1000만원 정도

못 받은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대여금, 법원판결문, 운송료, 각종채권, 구상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채무자 신용조사,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무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